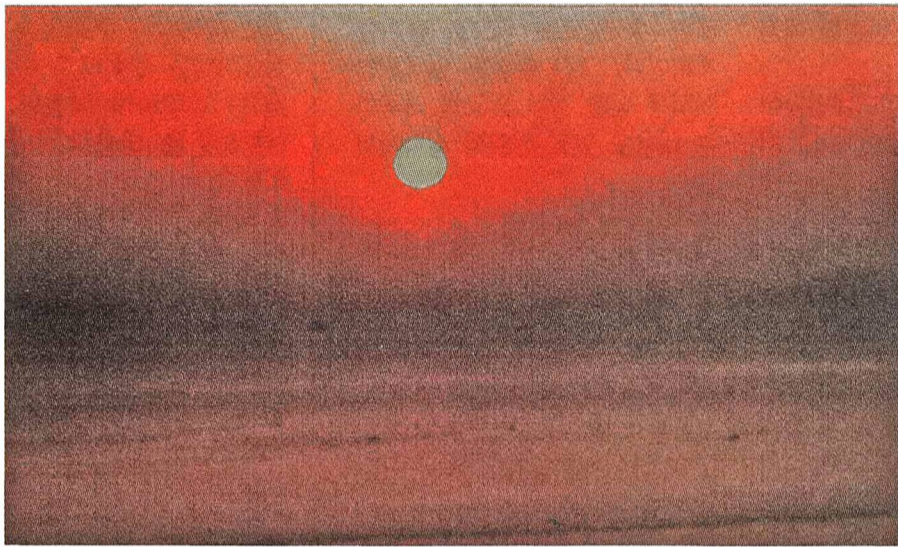




갈무리와 파종의 해

지난 해는 모든 이들이 상심을 입고 새로운 결의를 다진 해였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들은 단지 일자리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가정 자체가 파탄에 이르러 심지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목숨 짓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저민 사건이 꼬리를 몰고 일어나 그동안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었던 도덕적 가치가 밀등부터 허물어지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그런가하면 고이 간직한 아이들 뒤편까지 들고나와 국가경제의 회생에 큰 몫이 되었고 지난 여름 끔찍한 수해를 입은 이웃의 아픔에 전국민이 동참하여 아직 우리 사회에 희망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 좌절과 재기의 교차가 갈마들면서 한 해를 보냈고 이어 이구동성으로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기묘년이 밝은 것이다.

어찌보면 작년의 시련은 그간의 다소 방향 잃은 생활이 누적되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과보였는지 모른

다. 다만 그 때가 급작스럽게 나타났고 예상치 못할 정도로 좌절의 골이 깊고 넓게 패였을 뿐이다. 역사적인 한 해를 보냈고 이어 이구동성으로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기묘년이 밝은 것이다. 어찌보면 작년의 시련은 그간의 다소 방향 잃은 생활이 누적되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과보였는지 모른

다. 다만 그 때가 급작스럽게 나타났고 예상치 못할 정도로 좌절의 골이 깊고 넓게 패였을 뿐이다. 역사적인 한 해를 보냈고 이어 이구동성으로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기묘년이 밝은 것이다.

총기 30년을 맞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천년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올해 우리는 지난 세월을 총괄적으로 갈

무리하여야 한다. 개인과 사회가 겪어 온 여정을 돌아보고 그 길이 우리의 앞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고구하여야 한다. 한해의 농사를 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 올 봄날 파종의 계획을 세우는 농부의 마음과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하여 갈아엎을 것은 밀등에서부터 갈아엎고, 움켜쥔 것은 더욱 단단히 움켜쥘 것이다. 적극적인 부정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긍정의 세계를 만들려는 각고의 실천이 절실한 시간이다. 곱질을 부정하지 않고는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없으며 알을 깨야 새살을 볼 수 있는 이치와 다를바 없다.

동터오는 새날의 햇살에 낡고 묵은 사고와 체계는 어울리지 않는다. 단단히 갈무리하고 더 먼 앞길을 가기 위해 신발끈을 동여야 할 것이다. 그것도 어설피게 매는 것이 아니라 손아귀에 힘을 주어, 질끈 매어야 한다.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종령법어

부처님 정법에 의지하여 불법수호 대승보살도를 실천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웠던 무인년(無人年)이 지나고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탐욕과 미망에서 헤매는 것이 우리들 중생인자라 지난 해에도 우리는 그러한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핍박하며 가혹이나 어려운 세월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금세기의 마지막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참다운 지성과 양심을 가지고 화합하며 행복한 세상을 열어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느냐 못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이 한 해를 우리 불자들은 더욱 슬기롭게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가식(假飾)과 위선(僞善)을 과감히 걷어내고 진실한 자세로서 나를 살피고 이웃을 돌아볼 때 참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중종제망의 공영(共業) 중생이 이기적 욕망을 추구한다고 그것이 쉽사리 이루어지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이윅과 더불어 누릴 수 있을 때에만 맛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불자들이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悲 同體大悲)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대승보살도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때 비로소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의도들의 후세무민(感世誣民)하는 요설(餓舌)과 광태(狂態)가 난무할 것인 바, 우리불자들은 정법에 의지하여 흐트러짐 없이 더욱 용맹정진하면서 불법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재불보살의 가지(加持)가 두루하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묘년 새해 아침
총지종 종령 祿靜 합장

강남구 역삼제가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하기로

본 종단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전기 마련



▲ 본 종단이 운영하게 될 노인복지센터 전경

본 종단이 그간의 복지관련사업을 보다 체계화 전문화하기로 결의를 모아 새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12월 10일 강남구 역삼노인복지관 위탁사업자 선정심사 결과 본 종단으로 결정되었다.

이번에 수탁한 노인복지관(정식 명칭은 역삼제가노인복지센터로 개칭)은 노인주간보호시설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이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노인, 거동 불편 노인, 일반노인 등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역삼제가노인복지센터는 대지가 일백여 평, 연건평 약 이백 평 정도 규모의 신축건물로서 지하는 식당, 1층 사무실과 물리치료실, 2층 작업치료실과 휴게실 등, 3층 사회교육프로그램실이며 4층은 경로당으로 사용된다. 이 시설에는 복지관 관장을 비롯하여 노인복지 전문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8명이 상시 근무하며 지역 노인을 위한 각종의 복지관련 사업을 서비스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지역조사와 노인분들의 대면조사를 통해 재가봉사원관련사업, 고령자취업정보센터운영, 밀반찬 배달사업 등 지역유구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게 된다. 3월초순 개관예정인 현재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비품을 비롯하여 각종 물리치료기 및 보조장구 그리고 시설의 보완공사 등을 하고 있다.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가운데 정부(기초단체 포함)보조금이 약 70%로 예정되어있고 본 종단이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강남구에서는 처음 개관하는 노인복지시설인 이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지역적 관심은 예상을 넘고 있다. 4층 경로당의 경우 1월 중순계쯤 입주할 예정인데 복지시설 이용을 원하는 노인분들이 대거 경로당 회원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정원을 초과하여 역삼2동의 사회복지담당 직원 등 관련자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조계종단 외의 종단에서 복지관을 수탁한 것은 불교계에서는 본 종단이 처음이기에 불교계의 관심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복지시설 수탁 과정에서의 경험과 운영의 성과를 전종단적으로 반영하여 각 사원의 지역 사회 기여도를 한층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고 한편으로는 포교 일선에서 정진하고 있는 전승직자의 전문성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해 대정진 불공 회향

경제회복과 사회평안·가정행복 기원

1월4일~7일까지, 전국사원에서



지난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새해 대정진 불공'이 일주일간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이 새해불공은 1년 가운데 가장 큰 불공으로 사분정진(四分精進)의 가행(加行) 불공기간이다.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들이 삼밀유가관행법으로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도

들의 근기에 따라 하루 낮시간을 사시(四時)로 나누어 대정진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대불공은 불안한 사회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도들이 공식불공시간에 동참하였고, 또 평소엔 비해 개인정승시간을 2배 이상 늘린 교도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는 곧 나라경제회복과 사회의 평안,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대불공의 마지막 회향일에는 7시간 철야정진(7정진)이 있었는데, 동참 교도 대부분이 철야불공에 참석하여 굳건한 신심과 불퇴전의 용맹정진력을 보여주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와 토끼해에 거는 기대감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었다.

우리웃 전통한복을 아름다운 색상과 개성있는 문양으로 멋지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 ▶ 전통한복, 직품한복, 생활한복
- ▶ 신랑신부 관례복, 한복웨딩드레스
- ▶ 개성에 맞게 Style, 디자인, 색상선택
- ▶ 원단, 지수, 그림 생산 20년
- ▶ 중간 유통과정 생략으로 30% 가격인하



가격표

신부	치마, 저고리 (본견Silk J/Q)	₩420,000 → 290,000
	(본견Silk J/Q 갑사)	₩750,000 → 450,000
신랑	반두루마기 (본견Silk 자수, 칠보)	₩480,000 → 330,000
	(본견Silk 칠보, 양본단자수)	₩580,000 → 430,000
신부	바지, 저고리 (Poly J/Q 자수)	₩480,000 → 340,000
	마고자, 조끼 (본견Silk 칠보자수)	
신랑	바지, 저고리 (Poly J/Q 자수)	₩530,000 → 390,000
	마고자, 조끼 (본견Silk 칠보자수)	
신부	(바지, 저고리, 마고자, 조끼 개량형)	₩450,000 → 330,000
	두루마기 (본견 J/Q 황실견)	
신랑	(본견 J/Q 명실견)	₩390,000 → 280,000

우리웃 속진. 김병길 한웃

서울 중로4가5번지 한일빌딩 7층
전화 02.763.6412 / 741.7101
팩스 02.742.4335
불교총지종 밀인사 양민우

생산

도매

소비자

社說

저드나는 참회와 정진을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고조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에서 각국 또는 지역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생존 방산을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불교계, 정확하게 표현해서 한 종단의 구태로 여론의 심한 질타를 감수해야 했고 그 여진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떠난 행위에 대해 세간의 여론은 혹독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로부터 회복하려면 출세기를 막론하고 불제자로서의 참회와 정진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이다.

차제에 한국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불교의 전통상 출가종단의 위상은 그 내부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간간히 불거져 나오는 그들의 내분은 불교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위상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한편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 있는 의식과 행동이 따라야 할 것이다. 수행은 뒷전에 둔 채 종건과 중앙행정에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본분이 아니다. 근대 이후 외세에 의한 단절의 위기에 빠졌던 한국불교를 되살린 고승 대덕들의 행장과 원력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결혼 / 영식쌍생

- ◆ 대전 만보사 주교 법공 정사님의 장남 동광 군의 결혼식이 지난 11월 21일 서울 한국야쿠르트 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자리를 빛낸 주신 스승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청주 혜정사 주교 수증원 전수님의 차남 조중기 군의 결혼식이 지난 11월 28일 청주 웨딩프라자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해주신 스승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진주 화음사 주교 법정 정사님의 차남 정수 군의 결혼식이 구림 26일 마산 한우예식장에서 있었습니다. 축하해주신 스승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지난 12월 23일 재무부장 선도원 전수님(실지사 주교)의 부친께서 열반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읍나이디. 조분하여 주신 스승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종단 운영 계획

종단 내실에 최우선, 각종 프로그램개발

기묘년은 종단 내외의 중요한 전기로 설정하여야 한다. 급변한 다. 선결과제로 각 사원은 그간의 불공 및 포교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한 자책평과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기초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자신부터 바꾸지 못한다면 종단의 정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본 종단의 인터넷법당이 말하자면 우선 세상이 변해오다. 선결과제로 각 사원은 그간의 불공 및 포교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한 자책평과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기초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자신부터 바꾸지 못한다면 종단의 정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본 종단의 인터넷법당이 말하자면 우선 세상이 변해오

총기28년 종단의 새로운 도약과 사회변화에 걸맞은 프로그램개발, 교육과 출판 중점추진

고 있다는 자각이 전제되어야 종단 운영에 새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다. 창종 28년의 시점에서 다소 정체를 놓은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교구별, 사원별 적응을 중점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기간 실행하고 있는 중생교화 프로그램을 분석, 발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종단의 특성상 일상적으로 대중의 요구를 감지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시대와 대중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저간의 현실이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불제자로서의 정도는 출세가는 형식이 있지 않고 또한 산속이나 도심이냐로 갈리는 것이 아니다. 정도는 대중불교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실천하느냐에 있다. 본 종단의 창종이념이기 한 이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부터 참회와 정진에 혼신의 열정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총지중 홈페이지 개통

첨단정보화 시대 불교총지중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본 종은 지난 12월 24일 총지화 통리원장을 비롯한 여러 스승님 들께 홈페이지 시연회를 거쳐 수정을 통해 올 1월 9일자로 불교총지중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통되었다. 이로써 첨단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공간의 포교와 종교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



▲ 불교총지중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본 종의 개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종단사를 일별할 수 있으며 조종이신 원정 대성사(宛淨 大聖師)께서 생전에 대중에게 이르신 법설을 전문게재하여 창종 이념을 가깝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역대 종령의 사진과 간단한 소개, 본 종의 각기구와 산하기관, 각 사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약도, 종림학교 부산 동해중학교 소개, 최근 강남구

에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복지시설 강남구립 역삼재가노인복지시대 이후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밀교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특히 각종 밀교경전과 밀교관련 도서목록을 제공하여 일반인은 물론 불교학 전공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종단 소식, 한국불교와 밀교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국제사회에 한국밀교종단의 이해를 돕도록 영문판, 한문판, 일문판 등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chongji.or.kr>, mail to: chongji@chongji.or.kr, mandala@chongji.or.kr입니다. 신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통리원장 신년사



지난 해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아래에서의 원년을 맞이했던 한 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더구나 가정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자리까지도 황폐되어 우리의 분심(分心)은 침식되고 인도(人道)는 타락하여 역겹의 악업(惡業)만을 태산처럼 쌓기만 하였습니

다. 설결과제로 각 사원은 그간의 불공 및 포교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한 자책평과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기초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자신부터 바꾸지 못한다면 종단의 정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본 종단의 인터넷법당이 말하자면 우선 세상이 변해오

병든 사회는 분별에서 오는 업장의 과보,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

하고 있습니다. 물이 썩으면 그 속에 사는 생물 역시 살 수 없듯이, 한 사회가 오랫동안 병들어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면, 공동의 운명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병든 사회는 너와 나를 분별하는 데서 오는 업장의 과보요,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의 탓입니다. 이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재물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일」이요, 또 못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얼굴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요, 삼밀(三密)의 선행(善行)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며, 너와 내가 일심동승보살도를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행이라도 실천이 있어야 병든 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진언행자 모두가 앞장서서 자기의 본수를 지키고, 절제하여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욕바리밀 실천수행을 생활화하여 청정국토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

새해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생활이 안정되기를 모든 불자들에게 함께 서원하는 바입니다.

성도합니다. 음미나니베홍.

총기28년 새해 아침 통리원장 총지화(總持花) 합장

제26주년 창교절 기념불사 봉행

지난 12월 24일 전국 사원서 실시

제 26주년 창교절 기념불사 봉행이 지난 12월 24일 본 종의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전국사원에서 창종기념불사를 동시에 올린 후, 사원마다 스승님과 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종기념행사도 가졌다. 총본산 총지사에서는 본산 스승님과 교도 100여명이 국악 한마당, 찬불가 경연대회 등 창종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불사에서 종령 목적 대종사께서는 「다시 한 번 창조된 신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종(立敎開宗)의 정신을 되새기며 승단교도와 함께 종조님의 숭덕(崇德)을 기리자」면서 「총지종의 입교개종 정신과 그 교의(敎義)를 강조하셨다. 그리고 「중생교화에 주야로 용맹정진해오신 스승님과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발심을 일으켜 오신 교도 여러분에게 승단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한 후 「퇴전하지 말고 변함없는 대정진과 더욱 아낌없는 애정정신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총기 28년 기묘년



서울·경기 教區長 宗 領 祿 靜
충청·전라 教區長 宗 會 議 長
대구·경북 教區長 查 監 院 長
부산·경남 教區長 松 圓 曉
義修法水園 剛成願松

法藏院長 松 圓 曉
查監院長 松 圓 曉
宗會議長 松 圓 曉

總務部長 善 知 性
財務部長 善 導 願
社會部長 慧 滿 願
教政部長 圓 滿 願

統理院長 總 持 華

謹賀新年

밀교개론 9

밀교는 대승사상과 의례의 융합



효강 법장원장

4세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밀교의례가 점차 정비되고 각각의 의례에 있어 그 근거(典據)가 되는 밀교 경전이 차례로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들 경전의 내용은 다르나 독송과 함께 의례의 집행에 의해 어느 정도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목적은 치병(治病) 기우(杞憂) 부귀(富貴) 연명(延命) 등 현세이익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초기밀교경전의 대부분은 주법(呪法)의 경전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경 금강정경 등 7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걸쳐 성립되었다고 생각되는 중기 밀교경전에서는 제재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그 이상으로 성불문제가 중심이 되며 조직적인 의례와 수법의 체계가 구성되었다. 수법의 목적으로서 성불을 전면에 드러내놓은 것은 일반

적으로 인도의 중기밀교, 즉 순밀경전(純密經典)이며 잡밀(雜密)이라 일컬어지는 경전의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 경전들이 지닌 특색의 하나로 간주된다. 현세이익을 주 목적으로 삼은 밀교경전이 수법을 통하여 스스로 깨

즉 정등정각(正等正覺)을 얻는다는 기술(記述)이 급격히 눈에 띄기 시작한다. 특히, 현장에 있어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인도의 밀교는 6세기말이나 7세기초 수법이 라든가 다르나 독송의 목적을 그

大教王經)이라 하며 역시 이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것을 뜻하는 현증(現證)이라는 말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일경」 「금강정경」 등 중기밀교경전이 단순히 현세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를 주제로 하는 특이한 경전임을 이들 경전은 그 제목 속에 당당하게 표명(表明)하게 되었다. 또 이들 두 경전은 밀교 수법의 목적이 성불이라는 불교 본래의 입장에 있음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대승불교사상과 수법의 융합(融合)이 도모되고 있는 점에서도 특색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밀교 쪽에서 말하면 그것은 수법(修法)의 순화(純化)요, 내면화(內面化)이며 사상화(思想化)이지만 대승불교에서 보면 그것은 사상의 수법화(修法化)이며 의제화(儀制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밀교수법이 제재(除災)에서 성불(成佛)로 변화 이는 곧 수법과 사상의 내면화, 의례화를 의미

달음의 길을 강조하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랜 일이 아니다. 인도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한역경전에서 보는 한 그것은 당대(唐代), 즉 7세기 이후의 일이다. 7세기 무렵 활약한 지통(智通), 가범, 달마(達磨), 아지구다, 나제(那제), 현장 등이 번역한 밀교경전에 이르르면 현세이익과 함께 혹은 그 이상으로 올바른 깨달음,

때까지의 현세이익 기원에서 급격히 성불로 변경시켰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일경은 본래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비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라 하고 경제(經題)에서도 성불(成佛)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 「금강정경(金剛正經)」은 「금강정전에 이르러는 현세이익과 함께 혹은 그 이상으로 올바른 깨달음,



육바라밀의 실천과 생활화 4

법공(만보사주교)

바로 전편에서 '절량 회사'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그 공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회사법인 '매일 정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매일정액회사(毎日定額喜捨) - 정시법(定施法)

이 회사법은 매일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빼지않고 행하는 회사법으로써 행자(行者)가 각자의 형편(경제력, 회사심)에 따라 하는 실천법입니다.

현시대는 물질주의시대 즉 물질 안되나니 옮겨 써서 정화하라 수입할 때 못가리니 독(毒)이 화(化)해 감로된다. 제독(除毒)위해 정시하며 정화(淨化)위해 정시하니 탁한 수입 악(惡) 아니라.

표면에는 자유경제 혼탁한 것 같지만 이면에는 자유종교 정화기관 되어있다.

세상사망 수단으로 재물수입 하지만은 삼밀행자(三密行者) 정시(定施)해야 인무진(因無盡)에 수입된다. (『종조법설집』 「물과심의 이원원리」)

이상과 같은 종조법의 법어를 보더라도 혼탁한 이 물질시대에

같고 바다 같아 그 업장(業障)으로 해서 좀처럼 스스로 기꺼운 마음으로 보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무겁고 큰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우리 총지종의 정시법이야말로 확실히 수행법이라 하겠습니다. 탐업(貪業)을 녹일 뿐만 아니라 복(福)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박복(薄福)중생이 복업(福業)짓는 것이 마치 모랫밭에서 사금을 캐듯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중생작복(衆生作福)이 역

정시법(定施法) - 보시바라밀의 구체적 실천 우리 진언행자들은 절량로써 재물을 제독(除毒), 물질을 정화(淨化)

총지화 통리원장

만다라 소개 2

만다라와 총지종의 교상(敎相)

지난 호에서는 만다라(曼荼羅)를 건립하는 까닭을 경전 속에서 살펴보고, 또 본 종단에서도 만다라를 이미 사용하여 왔음을 여러 실례에서 간략하게나마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그 실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종조님께서 만다라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수차례 법설(法說)하셨다는 점에서 만다라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다라에 대한 법설이 『종조법설집(宗祖法說集)』 제1장 「교상과 사상편」과 제3장 「잡언편」 등 무려 13쪽에 걸쳐 설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종조 원정 대승사상에서는 "만다(曼荼)는 본질, 또는 심수(心髓)는 뜻이요, 라(羅)는 얻는다는 해석으로서 '본질을 얻는다'는 뜻. 다시말해서 '본질 그 자체', '일체제법을 구축한 것'이라는 깨달음의 이치의 경지를 표현한 하나의 세계를 목전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하시면서,



금강계만다라는 구체적인 실천철학을 도상으로 나타낸 만다라로써 보리심을 본체로 하는 만다라이다

을 의미하는 보리는 대일여래의 경지이다. 우주의 삼라만상의 구석구석까지 대일여래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우주가 곧 대일여래의 자체인 것이다. 왜

기 때문이다. 이에 삼밀이 원만하다 함은 만다라에 무수한 불보살이 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재보리심을 가지고 삼밀유가관행을 통해 즉신성불하는 세계가 곧 만다라요, 그 경지를 나타낸 것 또한 만다라요, 일체중생 삼라만상이 곧 만다라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만다라가 형상화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유정 비정 모두가 곧 만다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불성(佛性), 즉 형상화되지 않은 자성만다라(自性曼荼羅)로써 우리들 가슴 속에도 만다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만다라는 우주만물의 세계 중생이 곧 불성 · 자성만다라

든 활동, 다시 우주 그것의 경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 본질적인 것

나하면 대일여래의 삼밀은 삼체를 통하여 시방에 편만하여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다음호는 우리 종단의 본존과 남자관이 곧 만다라임을 설명하고, 진호국가불사의 만다라관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절에 가면서도 부처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휴 스님 엮음 (시인, 불교전문사)

우리는 이처럼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이 경전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나무가 없으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인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상한 인생은 살아 사이에 흘러간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살아 불멸의 세계로 나아가라.

우리는 날마다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깨기까지 오로지 돈과 출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지나친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구구절절 한 <소중한 부처님 말씀>은 진정 우리로 하여금 왜 이리 살고 싶어하는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상우 · 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 깊어지면 애정이 짙고 애정이 깊어지면 고통의 그림자가 뒤따른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이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성하기가 뜰쯤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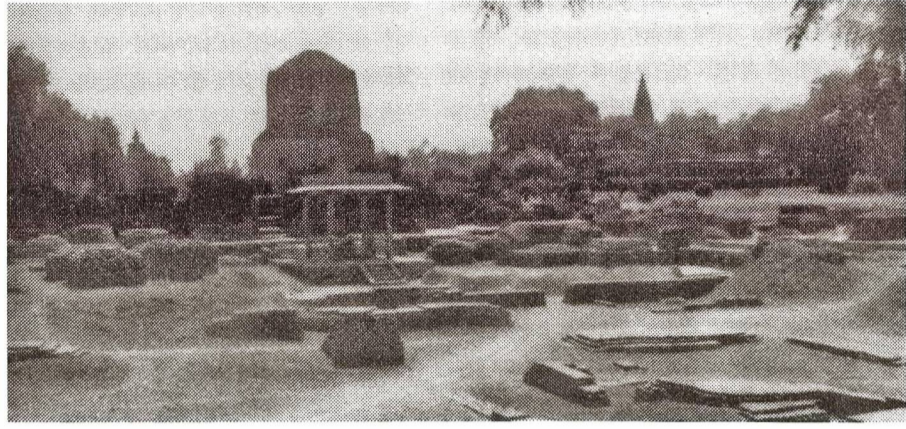


46판 양장 / 값 5,000원

불교개설 4

불교-깨달음의 종교

불교를 깨달음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깨달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몇 마디의 말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깨달음은 체험의 산물이므로 체득하지 않고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말로 아누타라삼막삼보리(Anuttarasamyak-Sambodhi)라는 용어가 있는데, 번역하면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며, 가장 높고 두루하며 바른 깨달음이라는 의미이다. 『아함경』 등의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연기법(緣起法)이라고 하고 있다. 연기는 '연하여 함께 일어난다'(Pratitya-Sam-utpada)는 말로써, 이 세상의 모든 현상적인 것들은 그것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因緣)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현상적인 존재는 모두가 인연에 의하여 생성된 것인데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緣起의 理法이다. 사실 불교의 핵심 내용은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것은 불교가 깨달음의 내용을 실하고 있으며, 깨달음은 수행을 통하여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의 신앙체계는 다른 종교의 신앙체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밀하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진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몇 가지의 특징으로써 살펴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인간의 인식범위를 넘



▲ 초전법륜지 녹아원 : 석존께서 5비구를 제도하며 처음 설법 하셨던 곳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시작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어선 초월적인 실재(神)를 실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간 이외에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을 세우고 그 대상을 신봉하여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타력적인 신앙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 밖에 이외의 다른 절대의 대상을 세우지 않는다. 창조신이나 주재신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 내면의 위대한 불성(佛性)을 발견하고 번뇌를 정화하여 진정한 자유(해탈)를 얻는 인간성불의 가르침을 펴는 것이다. 불교의 세계관 역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수립하고 있다. 근본불교의 교리에서 기본이 되는 오온설과 12차설, 업설 등도 인식의 주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현상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연기설도 주체적인 인간의 마음을 기본으로 하여 설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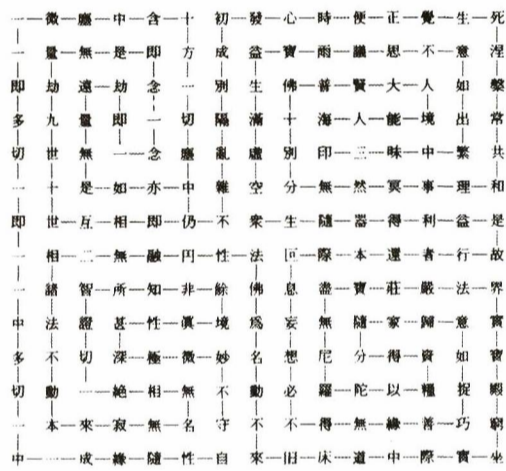
는 교설이다. 나아가 불교에서는 이 세계도 절대적 신이 생성·유지·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적인 작용인 공업(共業)에 의해 생성·유지·소멸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불교는 인간중심의 자력적인 종교인 것이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으로부터의 해탈(解脫), 곧 깨달음(成佛)에 있다. 참으로도 거짓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어떤 것을 세우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궁극적으로 자신의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는 개인적인 문제로서 그 누구도 대신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

한국불교의 고승

신라화엄의 대가 (大家) - 의상대사

1. 출생과 생애

의상은 신라 계림부에서 살던 김한신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때가 진평왕 35년(625)이다. 어려서부터 구도자적인 천성이 뚜렷하던 의상은 19세에 황복사로 출가하여 불도에 귀의하였다. 그 후 고구려에서 온 보덕화상으로부터 『열반경』과 『유마경』 등을 수학했다고 하며, 26세에 원효와 함께 당나라 유학을 계획하고 요동까지 갔으나, 고구려 군사들에게 첩자로 오인받고 잡힘으로써 실패하게 된다. 그 후 37세에 다시 두 번째로 구도의 길에 올라 원효는 되돌아가고 마침내 혼자 여행을 강행하여, 신라를 떠난 지 1년만인 38세때에 중국 장안 종남산 지상사의 지엄(智嚴) 문하에 이르러 된다. 의상은 8년 동안 스승인 지엄의 지도 아래 화엄학을 공부했으며, 마침내 자신이 그때까지 공부한 화엄의 이치를 《화엄



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 집약하게 된다.

2. 의상의 화엄세계 - 《화엄일승법계도》

의상의 화엄사상의 핵심·정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앞에서 말한 《화엄일승법계도》이다. 이 《법계도》는 의상의 저술로서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지엄이 제작한 73인(印)의 사상을 종합하여 하나의

정리 : 대현(법장원연구원)

역시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믿음만으로는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믿음만이 있고 앎이나 실천이 없다면, 맹목적인 믿음이나 미신으로 되어 사회의 큰 해악이 된다. 불교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실천, 그리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증득하는 길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여러 가지로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선천적인 본능이나 충동, 그리고 후천적인 나쁜 습관이나 번뇌 등은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행체계를 설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불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지혜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보는 힘을 말한다. 중생은 번뇌로 인해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여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도 다른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이 지혜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죽은 지혜가 될 것이다. 남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자비이며, 이 자비도 지혜를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자비가 된다. 이러한 지혜의 완성과 자비의 실천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힘이며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불교만이 이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서동석 칼럼

억지를 견어내고 새로운 천년으로

종다협 소비자보호위원회 실장

해마다 증가하던 승용차의 등록대수가 작년에는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한다. 자동차의 증가로 나타난 부작용을 우려한 시민정신의 발로였다면 더욱이 고무적인 현상일터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라살림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로 곤두박질친 결과에서 비롯된 일이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감소는 부실한 나라살림의 허황한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작년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말고 올해도 내년에도 꾸준한 줄였으면 좋겠다.

도시의 길을 메운 승용차의 수가 더 줄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이 지금처럼 이용하기 불편해서는 안 된다.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선뜻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 까마득히 오르고 내리는 역사 출입구의 계단만 봐도 단박에 질려 버리고 또 다른 노선의 지하철로 갈아 타려면 긴긴 미로를 헤매게 된다. 분명히 정확하게 '갈아타는 곳'이라는 표지를 따라 갔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갈아 타는 곳 뿐 아니라 지하철역이 있는 큰 도로에서는 맞은편 쪽으로 건너 가려면 또 까마득한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야 한다. 공연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는 그 고난을 배로 겪어야 한다.

서울의 한복판인 서울시청 지하철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요령을 터득했겠지만 어쩌다 이곳을 찾게되는 사람은 엄청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사람인 나도 이곳에서 엉뚱한 곳으로 나와 난감해진 적이 있었다. 원하는 곳이 아닌 딴 곳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일이 막막하다. 뻔히 눈에 보이는 맞은편을 가기 위해 한없이 돌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야말로 무단횡단의 유희가 저절로 솟는다.

요즘 들어 여러 곳의 지하철 역사에 '지하철 계단은, 운동으로 생각하면 즐겁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하두 사람들이 지하철 이용의 불편함을 지적하니깐 공리 끝에 운동삼아 계단을 오르내리라고 인근한 권유를 하는 것 같다. 그 표어를 궁리한 사람이 불자라면 아마 '일체유심조'를 떠올렸을 것이다. 제법에는 운동이 부족한 도시인들에게 하루 만보 걷기의 운동장 역할을 지하철이 제공하고 있으니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인지

가치있는 내일 함께하는 사람 <http://www.samyang.co.kr>

“단조로운 구질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

제 아무리 직구를 잘 던지고 변화구를 잘 던져도, 직구 하나 변화구 하나만으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력이 강한 사람, 주위를 편하게 하는 사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의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삼양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장 큰 힘을 만들어 내는 기업입니다.

직선적이지만 결단력이 빠르고 일처리가 신속한 사람

직구
가장 기본적인 구질로 무조건 빠르기도 스트라이크를 내 구질을 써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 템포 느리지만 남들 못보는 것을 보는 사람

커브구
직구와 달리 속도는 느리지만 타자의 타이밍을 헛기어 준다

평범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해지는 사람

싱커
직구처럼 보이더라도 타자 앞에서 갑자기 가라앉아 땅바닥을 유도하므로 구원투수에 좋은 구질이다

문제에 부딪혔던 언젠나 남과 다른 길을 찾아 해결하는 사람

슬라이더
움푹 패트 된 방향 약 60cm에서 바깥 아래쪽으로 쏘아 타자들을 헛는 현대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구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끔 주위를 놀라게 하는 사람

너클볼
시속 75~80km 정도에 회전없이 던져 타자나 포수는 물론 타자는 투수까지도 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신비로움이다.

삼양 • 삼양사(化纖, 설탕, 사료, 化成, 환경, 의학) • 삼양중기 • 삼양제넥스 • 삼남석유화학 • 삼양화학 • 신원제분 • 삼양메디케어 • 삼양텍스 • 삼양메이커시스템 • SY텍스타일 • SY비나 • 삼양연구소 • 양영희 • 수당정학회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나아갈 방향 ①

자성학교활성화·전담기구설치

자성학교를 키우자는 목소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되어가는 불교신도로서는 불교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의 미래는 바로 젊은 불자들의 포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총지종도 예외일 수는 없다. 여기에 젊은 불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 방안을 연중 다루어 보기로 한다.



이것 또한 지속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여름수련법회 성과마저 퇴색되어 버리기가 일쑤이다. 이러한 점은 자성학교, 학생회 결성을 유도하기에 그치게 하며 더구나 청년회 결성은 더욱 요원하기만 하다.

먼저 포교를 위한 분위기,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사원마다 기존의 '어린이 자성학교'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사원 주교의 책임하에 매주 정기적으로 열도록 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중앙전담기구를 두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순회

지도,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실 종단에서나 승단 스승님들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오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장의 포교 사업이나 불사(佛事) 중심의 포교에만 치중하다 보니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하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문제는 뒷전이 되면서, 시간과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서 매년 열리는 수련법회는 그 법회 준비자체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하자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고, 안하자니 하전한 것이라면 법회 개최 여부를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그때는 이미 늦다. 당장 금년 한 해가 어린이 청소년포교를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되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구상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빠를수록 좋으나 여유를 가지고, 하나 하나 점검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때이다. 서둘러서 될 일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마냥 팔짱만 끼고 앉아 있을 수 만은 없는 문제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는 가운데 그 해법이 있다고 본다. 우선 올해는 어린이 청소년포교를 전 반적으로 구상, 연구할 수 있도록 독립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종단의 분 발을 촉구해본다.

신행수기

마음의 인식 - 진언염송



밀인사 최경란 보살

모든 것은 인연과 인과 응보 속에서 있다. 나의 인생 말년에 총지종의 생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거센 세파에 떠내려 가던 나에게도 등대요, 지혜의 빛이었다.

돌이켜 보면 지나간 25년이란 세월은 나에게 많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병고와 생활고로 힘겨웠던 나날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 서서 볼 때, 나는 참된 여정으로 가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총지종에 들어온 것은 1975년 3월23일. 당시 주인 양반의 사업 실패와 더불어 불면증에 시달려 밤을 꼬박 새우기를 여러 날. 사업 실패에 따른 재산 정리 문제와 자녀들의 학비, 생활비 등에 고심하는 나날들이 많아 자던 밤을 지새는 날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몸은

막내딸이 "엄마, 그러지 말고 총지종 절에 우리 한 번 가봅시다." 하고 나를 데리고 갔다. 처음 받은 인상이 불상도 없고 나이 연로하신 분이 앉아 "옴마니 반메흠"을 하며 염주를 돌리고 있길래 속으로 '과연 여기서 내 병이 나을까' 하고 반문했다.

처음에 49일 불공을 드렸는데 드리면 서도 꼭 믿는 마음이 나지 않아 대강 대강 형식적으로 그냥 '옴마니반메흠'만 염송했다. 그러니 건강에 별 차도가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 나를 보고, 먼저 병고(病苦)로 입교하여 많은 공덕을 얻어 건강을 되찾은 보살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살님, 그런 희미한 믿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오직 부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성심을 다해 염송해 보십시오

불면증과 신경쇠약으로 시달린 생활 옴마니반메흠으로 생기를 찾아...

극도로 쇠약해졌다. 자연히 기력을 잃어 갔으며 그 와중에 불면증과 심장병이 침범한 것이다. 정신이 나른하고 눈이 뻑뻑해지며 얼굴은 항상 열이 나 있는 듯 벌겋게 상기되어 타들어 갔다. 마당을 서성거리며 잠들지 못하다가 이른 새벽 집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할머니, 할머니, 잠 안오는데 좋은 약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기 총지종 서원당 절이 있는데 아주머니 같이 잠이 안오고 신경을 많이 써서 병이 난 사람들이 병원에서조차 별 약이 없어 부처님께 열심히 불공을 많이 내었지요." 하고 말을 하길래 '아 그렇구나. 나도 한 번 가봐야겠' 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절에 갈 마음을 먹으면서도 선뜻 찾아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석가모니 불을 모시는 절에 다녔다. 그것이 총지종에서 말하는 현교 절이었다. 당시 나는 현교 절에 다니면서도 신경이 날카로와 신경질을 잘 내는 편이었으며 원망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각박한 현실에서는 무척 어려웠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오. 그러면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하고 충고해 주셨다. 그 말에 '나도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고 그 다음 49일 불공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불공을 드렸다. 49일불공을 마치는 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고 오랜만에 잠을 푹 잘 수 있었다. 너무나 신기했다. 이게 사실인가 싶었다. 그 만큼 잠 안오는 고통은 내게 무서우리만치 심각했고, 나는 밤이 두려웠다. 그때부터 나는 진실한 부처님 제자가 될 것을 부처님께 맹세하고 염송을 하라도 빠트리지 않고 열심히 불공을 했다. 그 이후 상당히 호전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이 보다 편안해지고 안락해질 때 부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망각하기 쉽다. 3, 4년이 지난 후 건강에 자신이 조금 생기고 난 후 믿음도 흐려지고 부처님께 불공 드리는 것도 점차 게을러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자만심이랄까, 절실했던 믿음이 점차 흐려졌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미련한 중생이다. 스승님께서 일전에 설법하신 것처럼 답답할 때는 울며 불며 부처님께 애원하고 일념으로 불공하다가 그 고비가 무사히 넘겨지면 잊어버리고,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새로이 아차! 하는 후회와 함께 부처님 전에 다시 다가서는 미련한 중생 가운데 나도 하나였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불공... 신행활동... 불퇴전의 용맹정진

신도 신행활동 활발, 서울 경인지구 신정회 '문화센터' 정기적으로 운영

총지사에서 열리고 있다.

국악 한마당, 신심도 절로 난다 - 국악교실 개설

어디서 풍물소리가 들리고 추임새가 들린다. 듣기만해도 어깨춤이 절로 난다. 총지사열 통리원 지하 국악교실에서 열리는 풍물소리다. 조세일 강사님의 강의로 사물놀이와 선이 고운 고전 무용을 배운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일주일에 두 번을 모여도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실력도 인정 받아 여러 곳에서 초청하는 까닭에 더욱 신명이 난다. 국악교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총지종 통리원 강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강습내용은 사물놀이와 고전무용이다.

붓글씨심매에 일체반되는 사라지고 - 서예교실 개설

은은한 묵향을 맡으며 정신 수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하는 서예교실(실장:심지행). 정성들여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는 모습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추사체의 묘미를 느끼고 싶다면, 예서체·전서체의 향기를 알고 싶다면, 활짝 문이 열려 있는 '총지사 서예교실'을 찾아보라.



▲ 강습에 열중하고 있는 신정회 보살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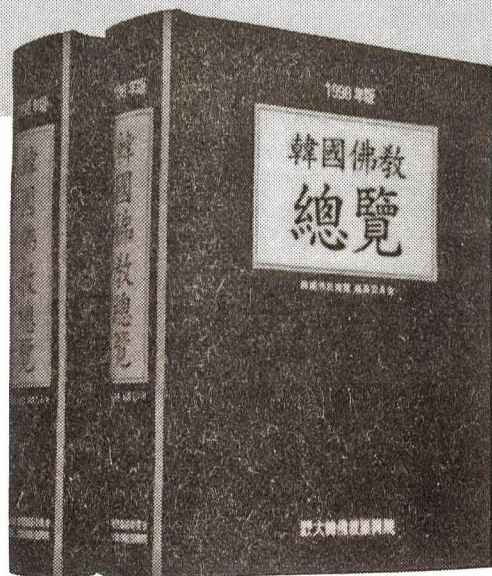
본 종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될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지요. ☎ 연락처 3452-7485

찬불가로 신심을 고취 - 찬불가교실 개설

노래가 좋아서, 부처님을 느끼고 찬불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워서 누가 먼저랄 것없이 찬불가 교실(단장:원각화, 지휘:대길화, 피아노:일심행)에 오시는 40여명의 보살님들의 웃음은 부처님을 닮았다. 서울경인지구 보살님들의 찬불가 교실은 개설된 이후 여러 해 사이에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결과 결핵식의 축가는 물론이고 대내외의 불교 행사 등의 참여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찬불가 교실에서 찬불가를 부르면 신심이 절로 나고, 스트레스가 쌓일 틈이 없다. 찬불가교실은 매주 수요일,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한국불교총람』 1998년판 발행



주요내용

- 1) 한국불교의 현황: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6) 사찰: 국내의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승사 및 재가불자 2,500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초판 이후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 불교연표: 초판 이후 한국불교관련 사건을 수록.

■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정가 120,000원

불교문화센터

불교문화강좌



- 불교강좌: 단청 / 불화그리기 / 위빠사나 / 사경
● 석화강좌: 서예 / 사군자 / 문인화 / 민화그리기 / 유희 / 서양화
● 건강강좌: 기공명사 / 건강기공 / 요가
● 전통교양강좌: 한국무용 / 생활꽃꽂이 / 노래부르기 / 생활역학 / 풍수지리 / 인상학 / 한지 그림공예
● 유아강좌: 미술교실 / 영어교실 / 구연동화교실 / 과학교실
● 서화강좌: 해외여행영어
● 커뮤니케이션강좌: 아나운서리포터입문
● 어린이강좌: 과학교실 / 미술교실 / 구연동화교실 / 영어교실 / 글짓기교실 / 바이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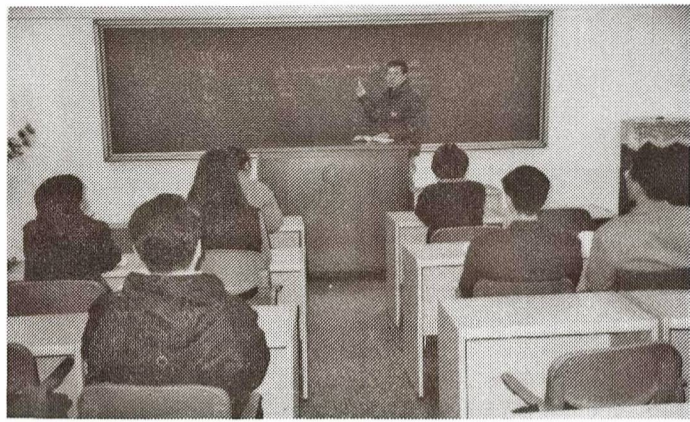
발심의 장

본산 종무원 향학 열기 가득...

종무원 열의에 자생적으로 강좌 열려

요즈음 본산에서는 퇴근시간 이후를 활용한 종무원들의 각종 교양강좌 수강 열기가 가득하다. 이는 종무원들의 배우고자 하는 학습열의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 강좌는 '불교초교리'와 '홈페이지 개설 및 운용', '경리실무' 등이다.

'불교초교리'의 경우, 그간 승단 스승님들이나 교도들을 위한 교리강좌는 있어 왔으나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없었던 사실. 평상시 교리에 대한 궁금증이나 교리공부에 관심이 있어도 체계적으로 학습 받을 기회가 없었으나 이번 강좌를 통해 나름대로 교리에 대한 감흥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 강좌는 본 종단의 연구기관인 법장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태 연구원이 몇몇 종무원들로부터 불교교리에 대해 문의를 해 온 점에 착안, 정기적인 강좌를 열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참석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습열의는 더욱 확산. 전 종무원들이 수



▲ 반야심경 강의가 열리고 있는 '불교교리강좌'

강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은 교도들에게까지 알려져 지금은 늦은 시간까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다. 본 강좌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30분까지 열리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열린 이 강좌는 금년 1월부터 종강을 하고 3월에 있을 총지불교대학 개강과 함께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또다른 강좌는 종단홈페이지 개설 이후 시작된 것으로, '홈페이지 배우기'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9월 22일 홈페이지개설작업이 착수된 이후,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종무원들 사이에서 작업진행과 함께 자생적으로 시작된 것. 종단홈페이지의 자료정리를 하던 일부 종무원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자료를 입력하는데까지 욕심을 내게 되면서 본 강좌는 아주 유연하게 시작되었다. 본 종단이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안효강 총지종 법장원장) 산하 '실직자를 위한 모임터'(「오투기 모임터」)에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이선희씨와 양정선씨 두 사람은 홈페이지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

종무원들의 강의요청에 의해 홈페이지에 대한 무료강의가 시작되었다. 이 강의는 매일 오후 점심시간후에 1시간씩 열린다. 이러한 교육열의는 앞으로 총지불교대학강좌와 관련하여 고무적인 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과과정을 위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무행정과 관련하여 통리원 종무원들에게 '경리실무' 강좌가 열리고 있다. 이 강좌는 통리원 종무원들이 전직 토탈의류 수출업체의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이상철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실무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실무강의를 적극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 매주 월, 화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내용은 경리실무와 관련한 '부가', '회계 처리 기법'.

이러한 자생적인 강좌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라는 점에서 대승보살도 실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관련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 설립

불교 복지 전산화로 정보·문화의 시대 준비한다

새해부터는 지역 사찰이나 비인가 복지시설이 복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시설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통신 방안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팀장 이해숙)가 이르면 2월 중순경부터 인터넷에서 항해를 시작한다.

종단협과 사회복지재단을 축으로 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는 각종 자료를 수집, 전산화 한 후 이 자료를 상용통신망이나 인터넷에 전용방을 개설,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불교사회복지 종합발간 ▶불교계 사회복지 현황 조사 및 자료의 전산화 ▶지역 사찰과 불교 복지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이다.

정보지원센터는 전국의 인가·비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효과적 인 조사를 위해 자원봉사를 활용할 것이고, 상용통신망이나 인터넷



▲ 불교계 복지관련 자비원홈페이지

넷에 개설된 정보지원센터 전용방의 자료는 매일 정기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정보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각종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팀을 현장에 보내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앞으로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는 2월중에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 종단의 사찰, 복지기관을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어 불교 복지 정보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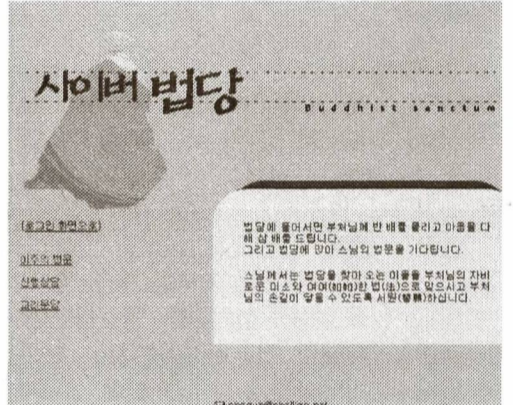
활한 흐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그래서 인터넷,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중앙 컴퓨터를 통해 자나 일반인, 각 사찰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용자들은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에 접속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정보지원센터는 올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간에 사회복지재단 주최로 열리는 사회복지대회에서 불교복지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래형 포교

다양한 정보 제공과 포교의 활성화 기대

불교계에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한 미래형 포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젊은 네티즌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정보의 다양화를 통해 대중에게 가까이 가는 불교의 새로운 공간으로 '사이버 공간'이 부각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불교계에서는 '사이버 사찰' 운영을 추진중이다. 이는 불교계에 살아있는 정보를 발굴, 가공, 정리해 새로운 환경에 빠른 적응을 꾀하고 포교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단위 사찰중 통도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달라진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달마넷의 메인 화면

또다른 방향에서는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 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안방시대'를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하고,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 TV로 송·수신하고 불교뉴스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팔만대장경 해제' CD롬으로 읽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CD롬이 간행되었다. 데이터베이스 개발 전문업체 (주)누리미디어(대표 최순일)가 개발한 'CD롬 팔만대장경'은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15권으로 펴낸 '팔만대장경 해제'를 전산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CD롬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팔만대장경을 알기 쉬운 한글판 해제로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한국 불교연구의 심화발전과 불교사상 대중화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장경 및 불교연구자들의 1차 자료 연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내용구성은 제1집에 팔만대장경 해제 전권, 금강산 불교유적 등 북한의 미공개 불교유적 슬라이드, 용어사전이 함께 수록돼 있고, 제2집은 운영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설화

말 많은 임금님

백 유 경

어느 나라에 말하기를 몹시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 왕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은 감히 말을 꺼내지도 불지도 못했다. 왕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그의 스승인 보살은 여러 가지 공리를 했다. 마침 그때 히말라야 야산 밑에 있는 어대 호수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백조 두 마리가 먹이를 찾아왔다. 거북이와 백조를 본 동네 아이들이 신기해서 다들 한 마디씩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아 저것 좀 보라. 백조한테 거북이가 잡혀 간다. 우습다.” 거북이는 아이들이 한 마디씩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욕이 나오는 것을 참다참다 거북이는 그 만 "아이 고안 것들이야. 난 잘혀 가는게 아니라 친구들이 나를 데려가는 거야."하고 말을 해버렸다. 말을 함과 동시에 땅에 떨어져 거북이의 몸은 두 조각이 나고 말았다. 마침 그때 말이 많은 왕이 들을 산책하고 있

었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거북이가 자기 발 앞에 떨어져 두 조각이 나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란 왕이 스승인 보살에게 여쭙었다. "스승님 어찌해서 거북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었습니까?" 무엇이든 다 아는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이 거북이와 백조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백조가 거북이에게 히말라야로 데려다 주겠다고 나뉘자기를 물리고 하늘을 날았지요. 그러다가 거북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 무엇을 지껄이려 하다가 나뉘자기를 놓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져 두 동강이 나서 죽은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언젠가는 이와 같이 불행을 당하는 법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말 많은 왕은 혹시 자기도 거북이처럼 불행을 당할까봐 다음부터는 말을 삼가하게 되었다.

365 자동코너

남산농협 하나로마트

MT Multi Shop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365자동화 코너

MT는

가자! 강촌으로

강촌에 오실분들, MT를 강촌으로 오실 대학생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 남산면 강촌유원지로 여행하시는 분들께 편리를 드리고자 남산 농협에서는 유원지내에 365일 현금자동지급코너와 하나로마트를 개설했습니다.

품 목

- ◇식품: 신선한 야채 및 과일, 음료, 주류, 일반식품
- ◇잡화: 부탄가스, 일회용품, 집시등 여행잡화
- ◇정육: 한우, 삼겹살, 목살

은행업무

강촌에는 365자동코너가 없더라? 농협에서 설치했습니다. 편리함 하나 더!→365자동화 코너

◇농협, 타행 현금카드 예금인출: 08:00~22:00

◇비씨카드 서비스: 09:00~17:00

강촌은 물건값이 비싸다? NO!

유원지의 비싼 바가지요금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녀야 했던 MT. 이젠 가볍게 오세요. 여기 강촌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하나로마트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매장입니다. 그러나 여행오신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만족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정성이 있습니다.

강촌으로 오세요! 농협이 있습니다. 단, 매진사고 예방을 위해 다량구입하실 물건들은 미리 전화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이웃 안전한 은행

농협

남산농협강촌지소
TEL: (0361)261-1934

